

◆ 94 수능(1차) 31~3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약(藥)과 악(樂)은 껍 겹났다. 그 닮은 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 ‘藥’과 ‘樂’의 글자 생김새부터가 비슷하다. 사물의 모양새나 뜻을 따서 만든 한자의 생김새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약’과 ‘악’은 소리 글자인 한글의 모양과 우리말의 발음이 비슷한 것이다. 이 둘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 약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그렇지 못한 ㉢ 약은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듯이, 좋은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꿀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청소년 교육이나 우리 나라 화랑도의 수련 과정에서 음악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교정 과정에서 음악의 역할이나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음악 요법에 관한 의학계의 연구 성과들은 음악이 인간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 음악이라든가,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를 표현한 전통 음악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상업주의에 바탕을 둔 대중 음악에 심취한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외국의 저급한 음악이나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는 다른 외래 음악이 오늘날 이 땅의 대중 음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들 음악에 편향된 관심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이들 음악이 우선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약의 질을 맛으로는 평가할 수 없듯이 음악의 질도 귀에 들리는 즐거움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 약이 우리의 체질에 꼭 맞으라는 법이 없듯이, 외래 음악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 약이 인류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듯이, 좋은 음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빚어 놓은 예술 음악이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전통 음악과 같이 좋은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정서를 가꿀 좋은 ㉥ 약이다.

31. 윗글에서 말하고 있는 ‘약’과 ‘음악’의 비슷한 점이 아닌 것은?

- ① 한자의 생김새
- ② 우리말의 발음
- ③ 부작용의 가능성
- ④ 교육적인 효과
- ⑤ 의학적인 활용

32. 윗글에서 약과 음악의 속성을 <보기>와 같이 비교할 때, 안에 알맞은 것은?

<보 기>	
약	음악
체질	정서
맛	즐거움
치료	<input type="checkbox"/>

- ① 순화
- ② 건강
- ③ 관심
- ④ 심취
- ⑤ 영향

33. ㉠~㉥ 중, 문맥상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0.8 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4. ㉠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할 때, 범하고 있는 잘못은?

그러므로 약과 음악은 그 기원이 비슷하다.

- ①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 ② 잘못된 통념을 따르고 있다.
- ③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 ⑤ 글자의 모양과 대상의 성질을 혼동하고 있다.

◆ 22 수능(예시) 16~21번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氣)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기와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양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씨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생(貴生)’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씨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일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先王)들의 음악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 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성 음악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음악들 중의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예술 사조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사조이다.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 음악의 체계가 상실된 것이며, 이는 곧 ‘무조 음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 버렸으며, 사명을 띠고 **한 이념**을 부르짖는다.”

무조 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작품 ‘㉢달에 홀린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인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Rezitation



이 곡의 성악 성부는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악보에 음표를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음표에 ×표를 하여 연주할 때에는 음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선율’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피에로로 분장한 낭송자가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는다. 또한 기악 성부는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이 곡은 무조적 짜임새를 기본으로 하여,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성악 기법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색채적 음향 등을 통해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16.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공통점	○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 ㉠ :
차이점	○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함. ㉡ ○ (나)와 달리 (가)는 음악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함. ㉢ :

	㉠	㉡	㉢
①	적절	적절	적절
②	적절	적절	부적절
③	적절	부적절	적절
④	부적절	적절	적절
⑤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17. ㉠에 제시된 음악에 대한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은 적절하지 않은 음악이 된다.
- ② 훌륭한 음악은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 ③ 사람이 음악을 즐기는 것은 선천적인 욕구에 따른 것이니 음악은 사람이 억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음악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면 마음이 쾌적해진다.
- ⑤ 쾌활한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슬픈 곡조의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슬픈 감정의 상태에 이르는 법이다.

18. (가)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노자(老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는 데 욕구가 방해가 된다고 보고, 현실 속 음악을 거부하였다. 그에게 최고의 음악은 우주의 근원인 도(道)의 모습을 닮아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이었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 장자(莊子)는 노자와 같이 음악을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음악을 천지 만물의 조화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음악이 인간의 삶에서 결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그는 의미 있는 음악이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본을 두면서도 형식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선왕(先王)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 ① 노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 ② 노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되었다는 데 긍정적이었던.
- ③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선왕들의 음악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 ④ 장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음악에 대한 묵자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 ⑤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만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음악을 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19. [한 이념]의 실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성에서 벗어난 무조적 짜임새로 표현하는 것
- ② 음계를 구성하는 7개의 음을 사용한 화음들로 표현하는 것
- ③ 사회 비판과 풍자를 가사에 담아 정확한 음높이로 표현하는 것
- ④ 불협화음을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하여 표현하는 것
- 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

20. ㉡의 관점에서 ㉢을 비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로 표시된 말하는 성악 선율은 주관적인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② 피에로 분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것은 음악 외적인 것이 개입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다양한 악기의 배합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것은 색채적 음향으로 무조적 경향을 깨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④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는 것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성 음악의 체계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일부만을 가사로 사용한 것은 전체 작품의 즐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1.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질문하기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탐색하기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찾기
↓	
분석적 읽기	(가), (나)를 읽고 주제, 관점, 내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하기
↓	
재구성하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재구성하여 글로 쓰기

- ① 두 글은 모두 음악이 구조적인 기본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내가 작곡할 때에도 적용해 보아야겠다.
- ②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감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③ 두 글은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 ④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
- ⑤ 두 글은 시대적 상황이 음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책 읽기를 실천해야겠다.

◆ 12년 PSAT 언어논리 문28

2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세종대 오례(五禮) 운영의 특징은 더욱 완벽한 유교적 예악(禮樂) 이념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 있다. 유교적 예악 이념을 근간으로 국가의 오례 운영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제(禮制)와 음악, 즉 예악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인식되었고, 예제와 음악이 조화된 단계의 오례 운영이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에 대한 정리가 시도되었는데, 음악연구의 심화는 박연(朴堧)에 의한 음악서 편찬으로 이어졌다. 박연은 음악을 양성음과 음성음의 대응과 조화로서 이해하였고, 박연의 의견에 따라 이후 조선시대 오례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은 양성음인 양률과 음성음인 음려의 화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자주적인 악기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악공(樂工)의 연주 수준이 향상되었다.

한편으로 박연 이후 아악(雅樂)과 향악(鄕樂)의 제가 제기되었다. 아악은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는 우리의 성음으로 이루어진 향악을 듣다가 오례 때에는 중국의 성음으로 이루어진 아악을 듣는 것에 대한 의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오례에서는 오례 아악을 연주해야 한다는 관행을 벗어나, 우리의 고유 음악인 향악을 유교의 예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오례 의식에서 향악을 반드시 연주하게 되었다.

나아가 향악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서 유래된 아악과 우리 향악 사이에 음운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보편적 음성이론에 의한 예악 운영에 따라 향악의 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① 아악과 향악은 음운 체계가 서로 다르다.
- ② 향악의 수준 향상으로 아악은 점차 오례 의식에서 배제되어 갔다.
- ③ 오례에서 연주된 향악은 양률과 음려가 화합을 이룬 음악이었다.
- ④ 완벽한 유교적 예악 이념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음악 연구가 심화되었다.
- ⑤ 세종대 음악에 대한 심화된 이해는 자주적인 악기 제조, 악공의 연주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 00 수능 13~18번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종이 조선 시대의 역대 왕 중에서 제도의 정비와 문치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군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음악을 정리하여 나라의 연례(宴禮)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음악을 정리한 그의 업적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것과 더불어 위대한 문화 애호 정신의 발로라 할 만하다.

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음악에 정통하였다. 『세종실록』에 실린 다음의 기록은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세종은 박연이 제작한 경(磬)* 두 틀과 중국에서 도입한 경 한 틀을 시험해 본 다음, 중국의 경은 음이 잘 맞지 않지만 박연이 만든 경은 바르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이척(夷則)* 하나의 소리가 약간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

였다. 이척은 서양 음악에서 'G#'에 가까운 소리인데, 이처럼 반음의 미세한 높낮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보통 사람의 음악적 소양이라 하기 어렵다.

세종은 우리 나라의 음악이 모두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에 뒤질 것도 없다고 보았다. ㉠ 중국의 음악이라고 하여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음악을 중국의 음악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온 향악(鄕樂)보다 중국계 속악인 당악(唐樂)과 송나라에서 들어온 아악(雅樂)이 중심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음악에 대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은 세종의 음악관이 매우 주체적이고 선진적이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세종은 종묘 제례에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종묘의 제례에서 당악을 먼저 연주하고 삼헌(三獻)*에 이르러서야 우리 나라의 전통 궁중 음악인 향악을 연주하는 실정이었다. ㉡ 나아가 세종은 제례에서는 물론 사신을 접대하는 회례연(會禮宴)에서도 향악을 제외하고 중국계 아악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시의 흐름이 우리의 고유한 음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새롭게 출발한 왕조에 걸맞은 음악을 제정하려 하였다. 그는 신하들에게 조상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을 제례와 회례연에 쓰는 것이 어떠할지 상의하라고 명한 바, 여기서 우리 음악에 대한 그의 주체적인 자세를 다시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세종이 중국의 음악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만을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계 아악에 편성되는 악기를 새로 제조하거나 아악을 정비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국수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외래 음악의 좋은 점을 수용하려는 의도였다. 세종이 박연 등에게 조회에 사용할 아악을 정리하라고 명한 다음의 언급은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보여 준다.

내가 조회(朝會)에 사용할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창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듣지 아니하기도 한다. ㉢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또 국가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좋은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나 당시 음악을 정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중국계 아악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향악은 상대적으로 홀대하였다. 그 때 참여했던 인물 중에 “가정에서 삼헌(三獻)* 가무를 가르치는 일은 실로 집안을 망치는 근원이니 삼가 그러한 뜻을 갖지 말라. ㉣ 금슬(琴瑟)*은 정악의 그릇으로, 예로부터 군자가 늘 곁에 두고 이것으로써 성정(性情)을 길렀으니 조용히 스스로 연주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자손에게 유훈(遺訓)을 남긴 사람이 있다는 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종이 “아악은 본래 중국의 음악인데, 그것을 제례에 사용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다가 죽은 뒤에는 아

악 연주를 들어야 하니 옳은 일인가?”라고 한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세종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종묘 제례 음악이 중국계 아악으로 바뀜으로써, 그의 주체적인 음악 정책은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음악 정책과 거기에 깔려 있는 자주적인 음악 애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국악이 서양 음악에 밀려 합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 *경 : 악기의 이름
- *이척 : 동양의 십이 음계에서 아홉째 음
- *삼현 : 제사 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
- *삼현 : 거문고, 가야금, 비파
- *금슬 : 거문고와 비파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세종은 제례 음악에 향악을 주로 사용하려 하였다.
- ② 세종은 박연 등을 통하여 향악을 정리하려 하였다.
- ③ 세종은 우리 나라와 중국의 음악을 대등하게 인식하였다.
- ④ 세종의 음악 정책은 아악과 향악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 ⑤ 세종은 미세한 음의 차이까지 구별할 정도로 음악적 소양이 있었다.

14. <보기>는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서문의 일부이다. ㉠의 주장과 상통하지 않는 것은? [2점]

<보 기>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표기할 글자와 글이 있다. 그래서 ㉠ 옛 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정(情)을 통하게 하고, 삼재(하늘, 땅, 사람)의 도리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언어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쓰고있다. 그러나 ㉢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니 어찌 능히 막힘 없이 통달하겠는가! 그러므로 ㉣ 중요한 것은 각각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 우리 동방은 예악, 문장 등 문물 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하나 우리말과 사투리는 중국과 같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상황 인식과 대처 방향이 ㉠과 유사한 것은? [2점]

- ①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 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 ② 현대인은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만 약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아름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현명하다.
- ③ 날씨는 급격히 변화되어,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안개가 자욱하고 음산한 구름장이 산허리에 감기더니, 은계(銀梯), 금계(金梯)에 다다랐을 때 기어올 비가 내렸다. 젖빛 같은 연무(煙霧)가 짙어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다.
- ④ 흥보 치레를 불작시면, 철대 부러진 현 파립,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며느리 떨어진 현 망건 밥풀 관자 노당줄을 뒷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지 현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른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대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방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엇비석이 들어간다.
- 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흑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꿈쩍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 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듯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펼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16. ㉡과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갑론을박(甲論乙駁)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④ 천재일우(千載一遇)
- ⑤ 백년하청(百年河清)

17. 세종의 음악 정책에 담긴 지향점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우리 문화의 세계화 ② 문화적 정체성 확립
- ③ 민족 문화의 활성화 ④ 전통 문화의 재인식
- ⑤ 외국 문화의 창조적 수용

18. '㉢ 금슬(琴瑟) : 부부의 금실이 좋다.'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고간(庫間) : 공간이 비었다.
- ② 세월(歲月) : 세월이 빠르다.
- ③ 중생(衆生) : 짐승보다 못하다.
- ④ 내외(內外) : 서로 내외를 한다.
- ⑤ 우레(雨雷) : 우레 소리가 크다.

◆ 09 LEET(예비) 언어이해 35~37번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조에는 세종의 명을 받아 표준 음률을 정하고 아악(雅樂)을 제정하는 사업을 맡았던 박연이 황종관 제작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제시했던 해결 방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박연이 아뢰기를,

“기장[黍]을 쌓는 법은 비록 전적(典籍)에 기재되어 있지만은 참된 기장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중략) 신이 원하옵건대, 남방의 여러 고을에서 기른 기장을 모두 가져와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쌓아 황종관을 만들어, 그중에 중국의 음과 서로 합하는 것이 있으면 삼분손익(三分損益)하여 12율관을 만들고, 오성(五聲)의 조화를 얻으면, 이어서 도(度)·량(量)·형(衡)도 따라서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 역대의 음률 제정이 기장으로 말미암아 일정하지 않았고, 성음의 높낮이도 시대에 따라 달랐으니, 지금 중국의 음률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장이 참됨을 얻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음률과 도·량·형의 제정은 곧 천자의 일이고 제후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만약 지금 남방의 ‘검은 기장[秬黍]’이 끝내 중국의 황종(黃鍾)*과 합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형편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기장을 임시로 사용해 쌓아 율관을 만들어 중국의 황종에 맞추고, 그런 연후에 법도에 따라 가감해 성률을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에는 세종이 음률 제정의 고제(古制)를 탐구하던 중에 황종관 제작 사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아악은 본디 우리의 소리[聲]가 아니고 실은 중국의 소리[音]이다.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으므로 제사 때 연주함이 마땅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전에는 향악(鄉樂)을 듣고 죽어서는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 그러한가? 하물며 아악은 중국에서도 시대에 따라 만든 것이 다르고, 황종의 소리 또한 높고 낮음이 있다. 이로 보아 아악의 제도는 중국에서도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회나 하례에 모두 아악을 연주하려고 하나, 합당한 제도를 정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황종관으로는 후기(候氣)**합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춥고 더운 풍기(風氣)가 중국과 아주 다른데, 어찌 우리나라의 대나무로 황종관을 만들겠는가. 황종은 반드시 중국의 관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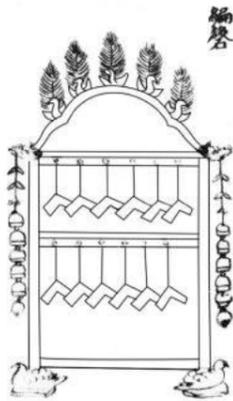
(중략) 박연이 만든 황종관은 어느 제도에 근거해 바로잡은 것인가? (중략) 지금 우리나라의 기장을 가지고 황종관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중략) 봉상사에서 악을 익히는 자들이 관습도감의 사람들만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관습도감의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연·정양은 모두가 신진 인사들이라 오로지 그들에게만 의뢰할 수 없을 것이니, 정들은 유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2년 12월 1일 조에는 「아악보(雅樂譜)」가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에는 아악의 제정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관의 기록이 있다.]

을사년(세종 7년) 가을에 해주에서 검은 기장이 나고 병오년 봄에 남양에서 경석(磬石)이 산출되니, 임금께서 개연히 옛것을 개혁해 새로이 고치려는 뜻을 갖고 박연에게 편경(編磬)을 만들라 명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본래 화음이 맞는 악기가 없어서, 박연이 해주산 검은 기장을 취하여 쌓아 크기를 맞추어 옛 설에 의거해 황종관 한 개를 제작해 붙어 보니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보다 약간 높았다. (중략) 우리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어 풍토 및 기후가 중국과 매우 달라 후기로 음률을 찾으려 해도 응당 증험하지 못할 것을 헤아려, 해주산 검은 기장의 모양으로 밀랍을 녹여 그것보다 약간 큰 낱알을 만들어 쌓아 황종관을 만드니, 그 형태가 우리나라의 작은 '붉은 기장[丹黍]'과 똑같았다. 곧 1알을 1푼[分]으로, 10알을 쌓아서 1치[寸]로 하는 법식으로 해서 9치를 황종관의 길이로 정하니 90푼이다. 여기에 1치를 더해서 황종척(黃鍾尺)의 길이로 정했다. (중략) 밀랍으로 만든 기장 1,200개를 관에 넣으니 진실로 남고 모자람이 없었고, 붙어 보니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과 서로 맞았다.

(중략) 지신사 정흠지 등이 박연에게 묻기를 “형제(形制)와 성음의 법을 어디에서 취했는가?” 하니, 박연이 말하기를 “형제는 중국에서 하사해 준 편경에 의하였고, 성음은 신이 직접 만든 12울관으로 맞추어 이루었습니다.” 하였다. 여러 대언(代言)들이 박연에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중국의 음을 버리고 직접 울관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하고 모두 터무니없고 망령되다 여겼다.



<세종실록의 편경>

(중략) 임금이 박연에게 명하기를, “내가 조희의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입법과 창제는 예로부터 하기가 어렵다. 임금이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혹 막고, 신하가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혹 듣지 아니하며, 비록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이 불리한 때도 있다.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하여졌고, 나라에 일이 없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이룩하라.”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황종: 아악의 12음률 가운데 첫 번째 음.

** 후기: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천지의 기(氣)를 황종관으로 측정하는 것.

35. 위 글의 ‘황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황종관의 길이는 황종척으로 9치였다.
- ㄴ. 황종관의 재료인 기장의 산출지는 전적에 규정되어 있었다.
- ㄷ. 중국에서 받아 온 편경의 황종음에 맞추어 황종관을 만들었다.
- ㄹ. 해주산 기장으로 만든 황종관과 밀랍 기장으로 만든 황종관의 음이 일치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36. 위 글의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악의 제정에 앞서 도량형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 ②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로 봉상시와 관습도감이 있었다.
- ③ 검은 기장과 경석의 출현으로 편경 제작 의욕이 고무되었다.
- ④ 조정의 관료들은 박연의 독자적인 황종관 제작에 비판적이었다.
- ⑤ 조희 음악과 제사 음악을 아악으로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37.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나의 뜻’을 정하는 데 바탕이 되었을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조선과 중국의 풍기는 다르지만 음률의 조화는 가능하다는 자신감
- ② 중국의 황종관도 정확한 후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생각
- ③ 고제에 맞는 참된 황종음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
- ④ 재래의 아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 인식
- ⑤ 중국의 아악도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 08년 3월 고2 43~46번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음의 높낮이, 길이, 세기, 빛깔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음악의 구성 요소를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악보를 기록하는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네 가지 요소 중 음의 빛깔과 ㉠ 세기는 선율의 장식적, 변화적 요인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율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음의 높낮이와 길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간보(井間譜)의 창안은 획기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세종 때 창안된 정간보는 동양에서 가장 앞선 ㉡ 유량(有量)악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이유는 우리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서였다. 세종 이전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아악을 기록하는 악보가 있었으나, 아악은 음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음 높이만 기록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향악은 음의 길이가 서로 달라 아악의 악보만으로 향악을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종은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듯이, 우리 음악인 향악을 기록하기 위하여 정간보를 만든 것이다.

정간보는 우물 정(井)자가 원고지처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간보에서 음의 높이는 정간(칸) 안에 문자를 써서 나타낸다. 문자는 음이름의 첫 글자를 한자(漢字)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 음악의 음이름은 무엇인가? 우리 음악의 음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흔히 '궁상각치우'라고 답한다. 그러나 궁상각치우는 중국 음악에서 쓰이는 ㉢ 계이름이다. 국악의 한 ㉣ 음역 안에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12음이 있다. 이 12음을 12울이라고 하는데, 12울에는 각각 고유한 이름, 즉 울명이 있다. 바로,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이다. 정간보에서 소리의 높이는 바로 12울명의 첫 글자로 표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옥타브의 변화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정간보에서 옥타브 표시는 문자의 변(邊)에 따라 구별된다. 즉 ㉤ 기본음인 황종은 황(黃)으로 표기하고, 한 옥타브 높은 음은 삼수변(彳)을 붙여 황(潢)으로 나타내며, 두 옥타브 높은 음은 삼수변 두 개를 붙여 황(滂)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한 옥타브 낮은 음은 인변(亻)을 붙여 표기하며, 두 옥타브 낮은 음은 인변을 두 개 붙여 나타낸다. 옥타브 높은 음의 울명에 삼수변을 붙이는 것은 청성(淸聲)의 '淸'에서 따온 것이며, 옥타브 낮은 음에 인변을 붙이는 것은 ㉥ 배성(倍聲)의 '倍'에서 따온 것이다.

정간보에서 한 정간(칸)은 한 박을 나타낸다. 정간보의 한 정간이 한 박일 때, 그보다 긴 음은 정간의 수에 따라, 그보다 짧은 음은 정간 속에 쓰여진 울명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한 정간에 울명 하나가 있으면 그 음은 한 박이 되고, 한 정간에 울명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 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음은 두 박이 된다. 또한 한 정간에서 윗부분에 울명을 쓰고, 그 아랫부분에 짧은 가로선을 그어 놓은 것도 한 박이 된다. 이 선은 앞의 음이 연장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정간 안에 두 음이 위 아래로 적혀 있으면 한 박이 2등분 되고, 세 음이 적혀 있거나 두 음과 짧은 가로선이 있으면 3등분 된다. 정간보를 읽는 순서는 정간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줄에서 왼쪽 줄로 읽어 나간다. 다만 정간 속의 울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은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43 위 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악과 달리 아악은 음의 길이가 같군.
- ② '정간보'는 향악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것이군.
- ③ '정간보'라는 명칭은 악보의 모양과 관련이 있군.
- ④ 선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의 길이와 높낮이로군.
- ⑤ 국악과 서양 음악은 한 음역 안에 있는 음의 개수가 다르군.

4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간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應	大 無	黃
南	林 — 仲	
—	—	姑

- ① 仲은 1과 1/3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黃은 두 박의 길이로 연주해야 하겠군.
- ③ 林과 大는 음의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應과 姑의 길이를 합하면 黃의 길이와 같겠군.
- ⑤ 黃, 姑, 大, 無, 林, 仲, 應, 南의 순서로 읽어야 하겠군.

45 ㉠의 원리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옥타브 높은 음	한 옥타브 높은 음	기본음	한 옥타브 낮은 음	두 옥타브 낮은 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46 ㉠ ~ ㉥ 중 '음의 길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점]

- ① ㉠ 세기 ② ㉡ 유량(有量)악보 ③ ㉢ 계이름
- ④ ㉣ 음역 ⑤ ㉥ 배성(倍聲)